

## ‘열린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소통을 위해

이송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단군의 자손 ‘한민족’임을 의심치 않고, 그러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교육받았던 세대에게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민족은 없다’라는 ‘발칙한’ 주장은 도발이었다. 이제 민족과 민족주의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싸워가며 지켜내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탈민족주의 담론은 근대의 표준적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또 다른 근대의 산물인 민족과 민족주의가 억압해 왔음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민족의 해체와 민족주의의 폐기, 그를 통한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대한 민족주의적 담론은 민족이 실질적인 삶의 단위였던 만큼 민족주의는 각 민족의 처지에 따라 역할이 다름을 주장한다. 한국과 같이 식민지배를 받은 약소국의 위치에서는 민족주의가 저항이데올로기로서 각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고, ‘민족자결’에 의해 국가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서구에서 시작된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동아시아 3국의 문호를 열어젖

히고, 근대로의 전환을 강요했다. 서구의 민족을 단위로 한 근대국민국가의 힘은 강했고, 그에 대응해서 중국, 일본, 조선 역시 근대국가로의 전환은 생존문제였다. 그 중 근대국가로 가장 성공적인 전환을 한 일본은 곧 이어 대외팽창 의도를 노골화했다. 결국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선은 주권을 상실함으로써 독립된 국가를 갖지 못했고, 민족의 이름으로 자주독립과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싸워 나갔다.

1945년 해방을 가늠케 했던 내적 동력은 민족과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분단정권이 수립되면서 민족주의는 이용되거나 방치되었다. 1990년대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억압기제를 벗겨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옥석을 가려야 하듯 반공적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지점에서 두 권의 책을 접했다. 김영명의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오름, 2002)와 탁석산의 『탁석산의 한국의 민족주의를 말한다』(웅진닷컴, 2004)이다. 민족주의의 특성과 그 전망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의 저서와 글은 많다. 그럼에도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은 차이 속에서도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김영명은 저술 동기를 “한국 사회를 풍미하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 없는 수용과 순응, 그리고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에 대한 경시 풍조를 고발하고 미국과 서양세계가 강요하며 주변부의 대외지향 엘리트가 적극 호응하는 세계화 조류 속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인가를 밝히는 것이라 한다. 또한 보편성으로 가장한 세계화와 민족주의에 대한 강대국의 시각을 비판하고 약소국으로서의 특수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세계화와 민족주의에 대한 서구, 특히 영·미 학계의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소

국 학자나 정책결정자가 가져야 할 시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책의 내용과 구성은 논문 형태의 전문 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담론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탁석산은 “민족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족에 도전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지금의 분위기를 나는 의심한다. 왜 민족은 이런 이데올로기가 되었는데? 민족은 꼭 통일되어야 하는가? 민족이 개인의 행복에 우선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즈음 민족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족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품었던 진정성이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 없다. 민족개념 해체와 민족에 대한 진정성,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다. 탁석산의 책은 독자들에게 민족주의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교양서로서, TV 토론 프로그램 형식을 빌리고 있다. 그렇다면 두 책에서 주장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은 무엇일까.

### **민족, 민족주의의 기원 - 근대의 산물인가?**

김영명은 민족을 근대의 산물로 보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근대성과 상관없이 공동의 언어와 핏줄,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즉 일종의 ‘전근대적’ 민족이 존재했었다. 전근대적 문화공동체가 19세기 말 외세의 침략과 함께 대의 저항적 근대 민족주의를 형성했고, 민족주의의 형성과 함께 한민족이 ‘근대적’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는 ‘반식민주의 저항민족주의’로서의 약소국 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

탁석산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명제를 인정하면서, 핏줄로 민족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민족을 가족의 확대로 보는 지극히 원초적인 발상이며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는 역사공동체로서의 민족 개념도 성립이 어렵고, 언어 역시 민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즉 핏줄(혈연), 언어, 문화는 민족의 규정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민족은 근대

이후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확산된 엔티티entity이다. 그러나 해야 할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적인 힘으로서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도구적이며 임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그는 “민족주의는 사다리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다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목표에 다다른 이후에는 치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지만,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가졌던 유용성과 진정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족주의는 심판대에 올라 있다.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도구였는지, 사납고 거친 외풍으로부터 개인의 행복을 지켜준 방풍림이었는지.

#### 한국민족주의는 과잉인가?

탁석산은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 ‘겸손한 장례식’을 치러 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한말부터 한반도의 과제는 근대민족국가 건설이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목표에서 한국의 근대화는 성공적이었고, 민족주의는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아직 통일국가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뿐이다. 그간 민족주의 지지자들이 지닌 진정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통일국가는 더 이상 민족의 이름으로 수립될 필요는 없기에 민족주의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러 주자는 것이다.

그는 한국 민족주의의 과잉 사례로 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가 아닌 검인정의 여러 교과서를 만들 것과 세계사 속의 국사교육을 제시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감정’을 지양하고 성숙한 자세로 하나의 ‘외국’으로 대할 것을 주문한다.

반면 김영명은 한국의 문제는 민족주의의 과잉이 아닌 민족주의의 ‘과소’ 또는 ‘사대주의의 과잉’이라 단언한다.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대내적 억압성과 대외적 폐쇄성에 있다. 그러나 한국 권위주의 체제의 지

베이념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반민족주의적 국가주의' 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한국에서 주도적인 국가 이념, 지배층의 지배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설 자리가 없었으며 지배층은 언제나 사대주의적이었다. '반일감정' 등으로 보여지는 '과잉' 민족주의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대중의 정념으로 존재한다. 한국 민족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그 과잉이 아니라 '원시성'에 있다.

한국 민족주의가 체계적인 이념으로 발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족주의를 견인할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데다가, 대외의존세력이 지배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주로 반정권反政權 또는 민중세력에서 두드러진 이념으로 '반체제 저항민족주의' 이고 '정념적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제 진정 필요한 것은 민족주의의 폐기가 아닌 '정책' 으로서의 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

민족주의가 미다스Midas의 손이 아니듯 모든 악의 근원일 수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갖는 감정적인 모습이나 호가호위적狐假虎威的 과잉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모습은 없을지…….

### 한국 민족주의의 전망

이제 한국 민족주의는 자신의 역할과 진로에 대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족주의의 과잉을 우려한 탁석산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수용했다. 그는 세계체제를 개인의 재산권과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로 해석한다. 유럽이 근대에 발견한 것은 개인이며, 개인의 행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 체제의 목표다. 한국 사회도 이런 기준에 도달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사다리의 마지막 한 칸인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을 남겨두고 있지만 거의 다 왔다는 것이다.

탁석산은 이제 민족국가가 아닌 시민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

리는 북한과 민족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므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면 민족 통일을 위해 남한의 개인을 억압하는 것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를 겸손하게 장래 치르고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김영명은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임을 강조한다. 약소국의 시각은 세계체제 단위가 아닌 '행위자 단위' 여야 한다. 현재 유행어인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서 패권주의적 성격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세계화 논의는 명백히 강대국 중심적이며, 세계화 정책이나 이념은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단으로 추구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는 이제 정념적 상태를 벗어나 올바른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대의 자주성'을 추구하며 '다원적 세계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국수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 민족주의'의 핵심은 첫째, 민족의식의 약화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대내적 획일성의 배제와 다양성의 추구이다. 즉 개인 권리의 일방적인 주장도 자제하고 공동체 또는 집단논리의 강요도 제어하여 둘 사이의 긴장된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적 개인'이 모여 사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

두 책은 결론적으로 각각 '열린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결론에서 과연 소통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까. 탁석산의 세계시민주의 지향은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민족주의는 그동안 강대국에 억눌려 살아온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게 해주었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독립하려는 의지를 심어 주었다. 그리고 아직은 민족주의의 힘이 남아 있고, 민족주의에 대한 진지함이 지속되고 있다.

민족주의라는 사다리의 마지막 한 칸을 더 올라가야 한다. 민족주의가 한창 타고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불꽃일 뿐이다. 한 칸을 더 오르면 우리는 사다리를 차 버리고 더 넓은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탁석산은 그간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국의 정체성, 주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민하고 성찰했다. 그는 한국의 정체성을 논하며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그는 “보편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이란 이름뿐이며 미국의 위장명이다. 즉 지금의 보편성 기준은 미국이며 미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것이다”(탁석산, 2000,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16쪽)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으로 보고, 특히 한국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약소국 이면서 주체적인 국가’를 선택했다. 더불어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 주권을 주장하고, 한글 전용, 국가 기반시설 지키기, 미국의 시각을 벗어나 할 말 하기를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으로 제시했다.(탁석산, 2000, 『한국의 주체성』, 책세상, 7~9쪽)

탁석산이 주장해 온 정체성과 주체성이 한국 민족주의에서는 어떻게 투영되고 접합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민족=진보, 친미=보수라는 도식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족과 국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를 지지하면 보수, 민족 편에 서면 진보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이 진보로 불리는 이유는 역사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는 데 있음도 지적한다. 그가 민족주의의 진지함을 말하는 이유가 이것인지도 모르겠다.

반면 김영명은 다음과 같이 민족주의의 정치이데올로기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의 시효는 얼마일까. 약소국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한 단단함은 있으나, 깰 수 없는 구도라는 강박감에 유연성을 잃을 여지는 없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세계화는 각 민족과 문화가 공정하게 어우러지는 다원적인 세계화이다. 획일적인 세계화와 배타적 민족주의는 충돌하고 다원적 세계화와 열린 민족주의는 같이 간다. 따라서 세계화의 일방적 요구에 맞서서 한국의 주체성과 국내외적 다양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진보적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개발되어야 한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다양성의 심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심화와 같이 간다. 민족통일은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큰 숙제이다. 이를 자주적으로 이루면서 동시에 국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두 책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민족담론의 현주소를 알려 주고 있다. 명백한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민족주의의 과거에 대해서는 모두 진지하게 인정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것, 더 이상 민족주의를 절대불변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공유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외침과 분단이라는 외부 자극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념이다. 그리고 현재 분단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이 때문에 아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에서만 찾는 것은 역시 부족하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한국인들이 좀 더 인간답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는 세계질서에서 주변 4강대국(미, 중, 일, 러)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현재 세계화의 흐름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논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약소국인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민족주의의 유효성이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다리' 일 수도 있다. 패권주의적 세계질서가 평화주의적 세계질서로 전환된다면 더 이상 민족주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전환을 한국이 앞서서 추동하기 위해 먼저 버리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채 이상을 쫓는 것은 허망해질 수 있다. 정치적 주권은 가졌으나, 경제적 주권은 스스로 빗장을 풀었고, 군사적 주



권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자유로운 한 개인으로서의 세계시민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선진자본주의 문화로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세계화는 비록 정치와 경제 발전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문화적 획일화는 구식민지의 억압체제만큼이나 위협할 수 있다. 인류 역사는 다양성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문화는 획일화되면 발전하지 못한다. 각 민족이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세계의 문화가 교류해야 한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주의는 역사발전 방향에 합치되며 전개되어 왔다. 계급이든 민족이든 아타我他的 구별이 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데 민족주의는 걸림돌일까, 지렛대일까. 두 책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이승순 leess85@empal.com | 고려대, 수원대 강사. 주요논문으로 「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변화」 등이 있고 「식민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을 공동집필했다.

